

# 순천시 발효식품산업 메카된다

### 100억 투입 남해안 발효식품센터 건립 미생물센터 연계 융복합 산업화 추진

순천시가 승주에 있는 미생물센터와 연계해 발효식품산업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출발이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추진 토론회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센터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 수렴 차원의 토론회를 열어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성공 여부를 가늠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효식품 전문가와 관계 기관, 업체, 시민단체,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연관 사업 사례 발표와 운영계획 보고, 지원센터 운영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제안과 토론이 진행됐다.

순천시는 앞서 1월8일 발효식품산업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설계에 반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는 내년까지



순천시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순천시 제공>

국비 5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된다.

승주읍에 있는 순천시미생물센터와 연계해 남해안권을 아우르는 발효식품산업 연구 개발 및 융복합 산업화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생산 및 연구시설, 행정 및 기업지원 시설, 창업보육시설 등이 갖춰진다.

현재 공정 설계 및 제품개발 용역과 건축 설계 공

모를 진행 중이며 설계가 마무리되면 오는 12월 착공해 내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지원센터가 가동되면 순천시 뿐 아니라 남해안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상품 개발, 기능성 분석, 공장 컨설팅, 마케팅 지원, 시제품 개발, 중소기업의 위탁 생산, 창업 지원 등 발효식품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기자 노트

### 구례 화합·발전 초석 놓자



이진택 제2사회부 부국장

김순호 구례군수가 18일 전·현직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등을 초청해 민선 7기 군정발전 간담회를 연다.

김 군수와 전직 군수 2명, 전·현직 도의원 6명, 군의원 7명과 전 군의원 28명 등 총 43명이 모임 계획이다.

이날 10시30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5년 민선 군수 취임 이래 이번 간담회가 열리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전·현직 군수와 의원들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군수가 군정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발전과 화합을 위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직 군수들의 화답에도 군민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현직은 정직의 협조를 바랄 것이고 전직은 관심과 예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구례군은 민선 이후 선거로 인한 분열과 갈등으로 당사자는 물론 군민들에게까지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겼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구례의 지도자

이며 지방정치의 주역들이다. 이제 아집을 버리고 어제의 구례를 뒤돌아보며 오늘과 내일의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논의해야 한다.

군민들은 입을 모은다. 구례가 이대로 간다면 내일의 구례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왜일까? 잘못된 지방자치와 선거가 군민의 식과 판단 능력을 떨어뜨리고 분열과 갈등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주역들이 어렵게 모인 자리다. 진정 구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절자해지'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행한다면 무슨 일이든 다할 것이다.

이번 간담회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분열과 갈등이 화합으로 거듭나 구례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디 성공하길 바란다.

다만 이런 의미있는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회담도 아니고 협상도 아닌데 군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아쉽다.

lit@kwangju.co.kr

#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 여수 유치...미디어시대 연다

### 국비 50억 확보...문수청사부지에 2023년 개관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여수에 들어선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시청자미디어센터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지역으로 여수시를 최종 선정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대통령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기관으로, 일반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체험, 방송시설과 장비 대여 등을 지원한다.

여수는 편리한 교통 접근성과 다양한 수요층, 대

한 지원을 담당한다. 센터의 운영과 관리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맡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역 언론과 연계한 전남의 특색 있는 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여수문수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소년, 장애인, 주부,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의 방송 제작 지원과 교육을 통해 명실상부한 미디어 교육의 장으로서 미디어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현재 서울·경기·부산·광주·강원·대전·인천·울산 등 8곳에서 운영 중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학·방송사·사회단체로 연계되는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여수 유치로 지역 내 미디어 교육과 체험을 위해 광주까지 가야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여수시 문수청사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2023년 초 건립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비 50억원을 투입해 방송제작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전남도와 여수시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에 필요한 부지 제공과 운영에



완도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감도.

# '5년 숙원' 완도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 195억 투입 2021년 완공 목표 생활체육·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완도군민의 숙원인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건립된다.

완도군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완도를 가용리 체육공원 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총 사업비 19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7136㎡, 지상 2층, 관람석 1181석 규모로 건립한다.

또 체육공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230대를 주차

할 수 있는 주차타워도 짓는다. 완도군은 배곡코트 2면 규모의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있었으나 건립된 지 20년이 지나 시설이 낡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지난 2016년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해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완도군 관계자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으로 군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하·동계 전지 훈련과 2022년 전남체전 등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함평교육청, 외국어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 북카페·오리엔테이션실 등 갖춰

함평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함평외국어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함평외국어체험센터는 지난 2월 교육지원청 옆으로 신축·이전했다. 북카페, 오리엔테이션실, Lab 실 등 6개 실을 갖췄다.

함평외국어체험센터 첫 방문 학교는 기산초등학교였다. 체험에 참여한 기산초 4학년 한 학생은 "외국어체

험센터가 새롭게 꾸며지고 더 넓어져 오래 있고 싶다. 원어민 선생님과 노래하고 춤도 추고 신나게 자주 오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완 교육장은 "민중 시민의식을 지닌 당당한 함평 인재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함평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됐을 때 '원어민과 1대1 전화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함평=황은하 기자 hwang@kwangju.co.kr



지난 15일 기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몰두해 처음으로 함평외국어체험센터를 방문, 외국어 체험을 했다. <함평교육청 제공>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 상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합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억~4억 원의 저금리 대출
-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신용보증)
- 3~9세 아동 5세 이상 저소득층 1차 입학지원금 무이자 대출
- 65세 이상 노인층 기초연금지원금 무이자 대출
- 지역별 소상공인의 경제활성화를 돕는 지원센터 설치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대흥지점**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침단지점 576-4150